

농촌노인의 일자리사업 참여실태와 만족도 및 요구도에 관한 연구

하경분^a · 주민경^{b*}

^a호서대학교 시간강사(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b호서대학교 겸임교수(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들의 일자리사업 참여실태와 만족도 및 요구도를 살펴봄으로써 농촌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노인들은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공익형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환경개선사업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고, 생계비 마련을 위해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 중에는 소속기관 실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셋째, 농촌노인들은 노인일자리사업 교육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노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교통문제로 인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농촌노인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제공과 교통편의 제공을 통해 참된 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농촌노인, 노인일자리사업, 일자리사업 만족도, 일자리사업 요구도

* 교신저자(주민경) 전화: 041-540-5114; email: joomin386@hanmail.net
우:336-795)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호서대학교 교직원양학부

1.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과 경제성장으로 인해 노인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었고, 노인의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는 2000년에는 7.2%에 이르렀고, 2008년에는 고령화 사회(10.3%)로 진입한데 이어 고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전체인구 중 14.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11). 이러한 고령화는 다른 국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노인인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농어촌에 편중되어 있다. 1990년 대비 2000년도 도·농 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국적으로도 5.0%에서 7.3%로 증가하였지만, 농촌의 고령화율은 9.0%에서 14.7%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0). 이처럼 도시의 고령화율을 농촌의 고령화율과 비교해 보아도 농촌의 고령화율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이호선, 2005). 이는 대부분 젊은 층 자녀들이 교육과 취업을 목적으로 도심으로 이동하고, 노인 부모는 농촌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노인층은 고령화와 인구 및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개인과 가족에 의한 부양이 취약한 상태이며, 아직 사회보장체계에 의한 소득보장도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남기철, 2013). 특히 우리나라 농촌노인들은 농업소득에 생활의 주 수입원을 의존하고 있지만 산업이라는 개념보다는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에 지나지 않는 경제적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노인층은 스스로 자구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후를 맞이하고 있으며, 공적인 노후보장제도 또한 아직 제도로 확립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많은 노인들이 자녀의 부양에 주로 의존하는 상황에 있다(박광준, 2004). 2006~2011년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44.9%→45.2%→46.0%→47.6%→47.2%→48.8%로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빈곤율 추이는 13.8%→14.4%→14.8%→14.3%로 전체인구의 빈곤율은 같은 기간 황보 내지 감소를 보였지만 노인빈곤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3).

또한 전체인구의 14.6%에 이르는 712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노동력 부족과 은퇴자의 은퇴 후 삶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사회적 변화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소득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역 및 기초지자체,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등의 민간기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처럼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적 일자리의 목적은 수익 혹은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아니라, 노인의 소외 극복과 탈빈곤, 그리고 노인의 근로활동 참여촉진을 통한 사회적 기여에 있다. 이는 사회가 노인의 소외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물질적·비물질적 지원을 하고, 노인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한편으로는 자신의 소외감과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향하는데 있다(변재관, 2006).

그런데 지금까지 노인일자리 관련 선행연구들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노인일자리사업 고용정책에 대한 연구,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자기효능감 등에 미치는 효과 등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농촌노인들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와 만족도를 다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들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실태와 만족도 및 요구도를 살펴봄으로써 농촌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농촌노인들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실태는 어떠한가?
- 둘째, 농촌노인들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도는 어떠한가?
- 셋째, 농촌노인들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요구도는 어떠한가?

2. 이론적 배경

2.1. 농촌노인의 특성

노년기는 인생의 최후의 시기이며, 여러 가지의 직·간접적인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 심신기능의 쇠퇴는 정신기능보다도 신체기능 쪽이 훨씬 강하게 쇠퇴하기 때문에 마음은 젊지만 신체가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며, 고독에 대한 불안, 건강 상실에 대한 불안, 삶의 보람에 대한 상실이나 경제적 불안, 정신활동 기능 및 적응력 저하 등으로 인하여 고민에 빠지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김익균 외, 2008).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대가족제도를 유지하여 왔으나 농촌의 경우 노인부부 또는 노인 단독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정서적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다.

노년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심리적인 특성으로는 우울증의 증가, 소극적이며 내향적 성격으로의 전환, 관심이 자기와 자신의 주변에 치중하는 자기중심성의 증가, 경직된 태도와 의존성이 증가함을 볼 수 있고, 보편적으로 친근한 물건에 대한 애착심이 늘어나며, 과거 회상에 대한 경향성이 높아지며,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을 나타냄을 볼 수 있다(고수현, 윤선오, 2006). 이러한 심리적 특성은 각 개인의 자라온 환경과 교육정도, 사회경험, 행동양식, 은퇴 후의 심리적 적응정도,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등 수많은 문제들이 유기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노년기의 특성은 농촌노인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노인의 가구구성 특성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즉 독거노인의 비율도 1990년 8.9%에서 2005년 18.8%로 지난 15년 동안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통계청, 2006). 독거노인은 1990년 8.9%에서, 2000년 16.1%로, 2010년 19.5%로 증가하고 2020년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 가운데 독거노인 인구가 20.2%로 증가하게 됨으로써 노인 5명중 1명이 혼자 살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강혁신, 2006).

또한 노인의 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국표본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개인소득 수준은 2008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463,047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전체노인의 60%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령이 점차 증가 할수록 소득 수준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고, 개인소득이 60~100만원인 노인층들 보다는 100만 원 이상인 노인층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나 65세 이상의 노인들 내에서도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있고(보건복지가족부, 2009b), 우리나라 노인 인구 중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을 얻는 노인이 절반 넘게 차지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통계청의 2009 농업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농촌 노인의 경제 소득 특성으로서 농촌 노인의 주 소득원은 농업소득으로 2009년 농촌지역 전체 농가의 경지규모는 1.0ha 미만이 전체 농가의 64.5%를 차지하고 있으며, 3.0ha 이상 경작 농가는 7.5%밖에 되지 않아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의 주 수입원인 농업소득의 열약함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농가인구는 60~69세의 농가가 21.9%, 70세 이상 농가가 22.8%를 차지하고 있어 연령대별 농가인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2008년 대비

3.6%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농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경지규모가 0.5ha미만의 소규모 경작 농가는 2008년에 비해-6.5%로 줄어든 반면 5.0ha이상 농업 경영을 하는 농가는 상대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농촌노인의 주 소득원인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이경순, 2012). 이처럼 우리나라 농촌노인들은 농업소득에 생활의 주 수입원을 의존하고 있지만 산업이라는 개념보다는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에 지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경제구조가 여러 가지로 변화되었는데, 농업형태가 상업적으로 진화되어 농촌에서는 생산 활동만 담당하고, 저장, 가공, 유통 등은 도시로 이전되었으며, 농업의 기계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노동력은 고령자와 부녀자에게 의존하고 있고, 영농후계자의 부족, 영세한 소농구조 등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처럼 농촌노인들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힘든 농사일을 해야 하며, 젊은 인력의 이동과 도시에 비교해 의료시설의 미비 등의 조건은 농촌노인들을 보다 힘들게 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농촌의 노인문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농촌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개발하여 복지의 폭을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2.2. 노인일자리사업

노년기 생산적 활동요인에서 노년기에 적절한 일을 갖는 것은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유지시키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또한 노년기의 일은 개인에게는 자아를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이며, 여러 가지 상실을 통해 겪게 되는 노년기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한다(장유미, 2011). 따라서 노인의 지속적 노동참여정책은 노인의 퇴직에 따른 사회보장비 지출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Neagele & Kremer,

2001), 국가 대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다(Wolocott, 1999).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노인일자리사업이라 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소득보전에 대하여 제일의 초점을 두고 다양한 노인 문제의 종합적 예방과 해결을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노인의 능력수준에 맞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국가정책사업이다(이문국, 2009). 이러한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이라는 복합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여기에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혹은 건강증진이라는 부수적 효과를 의도하였다. 새로운 마지플랜이나 여타 초기의 여러 계획 문건에서 활동적인 노후(active aging) 혹은 활동적 성공적 노후(active aging/successful aging)라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목표의식이 드러나고 있다(남기철, 2009).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 처음으로 25,000개 일자리를 목표로 시작된 사업이며, 비교적 단기간에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2011년 사업의 연간 실적 집계 기준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수는 1,214개, 사업단의 수는 5,014개,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창출 실적 즉, 노인에게 제공된 일자리의 수는 220,346에 이르고 있다(남기철, 2013). 또한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복지법과 노동부가 주관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를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적합 직종의 개발 및 보급 시책을 강구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노인 적합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제23조의 2와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

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a).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유형은 공공의 이익을 담당하는 공익형, 노인들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으로 사회참여기회의 제공의 교육형,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형, 그리고 준시장형과 화폐교환가치의 인력과견형은 노인 취업알선의 소득보장에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이 중 사회공헌형(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사업기간은 7개월이고, 인건비는 월 20만으로 책정되어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a).

〈표 1〉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구 분	유 형	의 미
사회공헌형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 노인일자리 예산에서 참여노인 인건비와 부대 경비를 전액 지원
시장진입형	인력과견형, 시장형	· 공동체 사업단이나 기업 등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업체에서 매출을 통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에서 인건비나 사업비 등 부대 경비를 추가적으로 지원

출처: 남기철(2013).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쟁점. 서울경제, 통권 94호, p.7.

이와 같이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에 대한 공적 소득보장체계가 취약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조적인 소득보장과 활동적 성공적 노후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으로써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의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시장진입형 사업은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아울러 기본적인 성격에서 같은 패러다임을 공유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관련 프로그램들과의 연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공헌형 사업은 그 내용과 수준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남기철, 2013).

3. 연구방법

3.1.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는 2007년 처음으로 실시되어, 2010년 2차 조사를 거쳐 2012년 3차 조사에까지 이르렀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2012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실태조사」는 2012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생활실태 및 사업참여 욕구를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평가 및 향후 정책 마련에 기초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조사의 모집단은 201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전체(2012년 7월 31일 기준 16개 시도 226,941명)인데, 이 중 조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주와 세종시는 제외하였으며, 재정지원체계 등이 다른 사업유형과 차이가 있는 창업모델형 참여자는 제외하고 조사모집단을 구성하였다. 또한 2가지 사업에 동시에 참여한 노인은 급여가 높은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을 제거하여 최종 조사모집단은 222,381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5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는 2012년 10월 12일부터 2012년 11월 16일까지 약 6주간 전문조사기관인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조사방법은 응답자와 면접원이 대면하여 조사하는 개별면접조사 방식(Face-to-face Personal Interview)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활용하여 면접원이 질문하고 응답자의 응답을 면접원이 기록하는 타계식 방법을 원칙으로 하였다.

3.2. 연구내용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그리고 건강상태의 5문항을 사용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참여 사업유형, 노인일자리사업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경로, 참여 주된 이유,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교육시간, 교육내용의 6문항을 사용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총 16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2점), '그저 그렇다'(3점), '그런 편이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는 .77이었다.

마지막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시 우선적 개선점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시 느끼는 어려움의 2문항을 사용하였다.

3.3. 분석방법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농촌노인들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실태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만족도,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 검증과 t-test(검증), One-way ANOVA(일원변량분석), 그리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4. 분석결과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 별	남	178	35.2
	여	327	64.8
연 령	70세 미만	97	19.2
	70~75세 미만	194	38.4
	75~80세 미만	148	29.3
	80세 이상	66	13.1
결혼여부	기혼(유배우자)	266	52.7
	기혼(사별, 실종, 이산가족)	230	45.5
	기혼(별거, 이혼)	8	1.6
	미혼	1	0.2
학 력	무학(글자모름)	56	11.1
	무학(글자해독)	115	22.8
	초졸	221	43.8
	중졸	64	12.7
	고졸	31	6.1
	2년제 전문대졸 이상	18	3.3

건강상태	전혀 건강하지 않음	8	1.6
	건강하지 않은 편	91	18.0
	보통	175	34.7
	건강한 편	207	41.0
	매우 건강함	24	4.8
계		505	100.0

성별로는 여자 노인이 64.8%로 남자 노인 35.2%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70~75세 미만이 38.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75~80세 미만 29.3%, 70세 미만 19.2%, 80세 이상 13.1%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별로는 기혼(유배우자)이 52.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기혼(사별, 실종, 이산가족) 45.5%, 기혼(별거, 이혼) 1.6% 순이었다.

학력별로는 초졸이 43.8%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무학(글자 해독) 22.8%, 중졸 12.7%, 무학(글자 모름) 11.1%, 고졸 6.1% 순으로 차지하였다. 건강상태별로는 건강한 편인 노인이 4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통 34.7%, 건강하지 않은 편 18.0%, 매우 건강함 4.8%, 전혀 건강하지 않음 1.6% 순으로 나타났다.

4.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실태

4.2.1. 참여사업 유형

농촌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유형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이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공익형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4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복지형 22.4%, 교육형 12.3%, 시

장형 10.7%, 인력파견형 6.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공익형과 교육형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고, 여자노인은 남자 노인보다 복지형과 시장형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31.75$, $p<.001$).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은 노인일수록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공익형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고, 75~80세 미만인 노인은 다른 노인보다 복지형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79.55$, $p<.001$).

〈표 3〉 참여사업 유형

구 분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시장형	인력 파견형	계	χ^2 (df)
성별	남	98 (55.1)	31 (17.4)	20 (11.2)	12 (6.7)	17 (9.6)	178 (35.2)	31.75*** (4)
	여	145 (44.3)	31 (9.5)	93 (28.4)	42 (12.8)	16 (4.9)	327 (64.8)	
연령	70세 미만	22 (22.7)	22 (22.7)	21 (21.6)	12 (12.4)	20 (20.6)	97 (19.2)	79.55*** (12)
	70~75세 미만	95 (49.0)	20 (10.3)	45 (23.2)	23 (11.9)	11 (5.7)	194 (38.4)	
	75~80세 미만	77 (52.0)	17 (11.5)	36 (24.3)	16 (10.8)	2 (1.4)	148 (29.3)	
	80세 이상	49 (74.2)	3 (4.5)	11 (16.7)	3 (4.5)	-	66 (13.1)	
계		243 (48.1)	62 (12.3)	113 (22.4)	54 (10.7)	33 (6.5)	505 (100.0)	

*** p<.001

이상과 같이 농촌노인들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형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남자 노인과 연령이 많은 노인일수록 노인일자리사업

중 공익형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4.2.2.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

농촌노인들이 노인일자리사업 중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이 노인일자리사업 중 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이 39.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취약계층지원 15.0%, 시장형 9.9%, 교육활동 9.1%, 복지·보육시설지원 8.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노인일자리사업 중 환경개선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고, 여자 노인은 남자 노인보다 취약계층지원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45.59, p<.001$).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은 노인일수록 노인일자리사업 중 환경개선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고, 75~80세 미만 노인은 다른 노인보다 취약계층지원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87.68, p<.001$).

<표 4>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활동

구	분	환경개 선사업	교통질 서확립	공공기 관·시 설지원	복지· 보육시 설지원	교육 활동	취약계 층지원	가타복 지원	시장형	인력파 견형	계	χ^2 (df)
성 별	남	74 (41.6)	15 (8.4)	10 (5.6)	7 (3.9)	27 (15.2)	15 (8.4)	3 (1.7)	9 (5.1)	18 (10.1)	178 (35.2)	45.59 *** (8)
	여	123 (37.6)	10 (3.1)	17 (5.2)	37 (11.3)	19 (5.8)	61 (18.7)	4 (1.2)	41 (12.5)	15 (4.6)	327 (64.8)	
연 령	70세 미만	18 (18.6)	3 (3.1)	3 (3.1)	9 (9.3)	15 (15.5)	16 (16.5)	3 (3.1)	11 (11.3)	19 (19.6)	97 (19.2)	87.68
	70~7 5세 미만	71 (36.6)	10 (5.2)	12 (6.2)	25 (12.9)	14 (7.2)	27 (13.9)	2 (1.0)	23 (11.9)	10 (5.2)	194 (38.4)	

연령	75~80세 미만	63 (42.6)	10 (6.8)	7 (4.7)	8 (5.4)	14 (9.5)	27 (18.2)	1 (0.7)	14 (9.5)	4 (2.7)	148 (29.3)	*** (24)
	80세 이상	45 (68.2)	2 (3.0)	5 (7.6)	2 (3.0)	3 (4.5)	6 (9.1)	1 (1.5)	2 (3.0)	-	66 (13.1)	
계		197 (39.0)	25 (5.0)	27 (5.3)	44 (8.7)	46 (9.1)	76 (15.0)	7 (1.4)	50 (9.9)	33 (6.5)	505 (100.0)	

*** p<.001

이상과 같이 노인들은 노인일자리사업 중 환경개선사업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남자 노인과 연령이 많은 노인일수록 노인일자리사업 중 환경개선사업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다.

4.2.3.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경로

농촌노인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이용하고 있던 기관을 통해 알게 된 노인이 3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군구 담당 공무원 22.2%,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지인 20.8%, 지역 내 동·반장 또는 이장 17.2%, 시군구 게시판 및 리플렛 2.6%, 기타 2.2%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노인일자리사업 인지 경로

구분		이용하고 있던 기관(경로당, 복지관 등)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지인	지역 내 동·반장 또는 이장	시군구 (읍면동) 담당 공무원	시군구 (읍면동) 게시판 및 리플렛	기타	계	X ² (df)
성별	남	69 (38.8)	22 (12.4)	26 (14.6)	48 (27.0)	7 (3.9)	6 (3.4)	178 (35.2)	18.19** (5)
	여	108 (33.0)	83 (25.4)	61 (18.7)	64 (19.6)	6 (1.8)	5 (1.5)	327 (64.8)	

연령	70세 미만	38 (39.2)	23 (23.7)	13 (13.4)	13 (13.4)	6 (6.2)	4 (4.1)	97 (19.2)	25.46* (15)
	70~75세 미만	66 (34.0)	44 (22.7)	34 (17.5)	41 (21.1)	6 (3.1)	3 (1.5)	194 (38.4)	
	75~80세 미만	48 (32.4)	30 (20.3)	29 (19.6)	36 (24.3)	1 (0.7)	4 (2.7)	148 (29.3)	
	80세 이상	25 (37.9)	8 (12.1)	11 (16.7)	22 (33.3)	-	-	66 (13.1)	
계	177 (35.0)	105 (20.8)	87 (17.2)	112 (22.2)	13 (2.6)	11 (2.2)	505 (100.0)		

* p<.05, ** p<.01

성별로는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이용하고 있던 기관과 시군구 담당 공무원을 통해 많이 알게 되었고, 여자 노인은 남자 노인보다 가족, 이웃, 친척, 친구 등 지인을 통해 많이 알게 되었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8.19$, $p<.01$). 연령별로는 70세 미만인 노인이 다른 노인보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이용하고 있던 기관을 통해 많이 알게 되었고, 연령이 많은 노인일수록 시군구 담당 공무원을 통해 많이 알게 되었으며,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25.46$, $p<.05$).

이상과 같이 농촌노인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이용하고 있던 기관을 통해 가장 많이 알게 되었으며, 남자 노인과 70세 미만인 노인이 다른 노인보다 노인일자리사업을 이용하고 있던 기관을 통해 많이 알게 되었다.

4.2.4.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하는 주된 이유

농촌노인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생계비 마련을 위해 참여하는 노

인이 59.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용돈 마련 26.5%, 건강 유지의 수단 4.4%, 사회 참여의 수단 3.6%, 여가시간 활용 수단 3.0%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하는 주된 이유

구 분		생계비 마련	용돈 마련	사회 참여의 수단	건강 유지의 수단	자아실현 및 자발전 수단	여가시간 활용 수단	일 통 한 즐거움	계	χ^2 (df)
성별	남	97 (54.5)	45 (25.3)	5 (2.8)	13 (7.3)	7 (3.9)	9 (5.1)	2 (1.1)	178 (35.2)	18.46 ** (6)
	여	204 (62.4)	89 (27.2)	13 (4.0)	9 (2.8)	2 (0.6)	6 (1.8)	4 (1.2)	327 (64.8)	
연령	70세 미만	57 (58.8)	25 (25.8)	4 (4.1)	2 (2.1)	3 (3.1)	2 (2.1)	4 (4.1)	97 (19.2)	19.51 (18)
	70~75세 미만	116 (59.8)	52 (26.8)	8 (4.1)	7 (3.6)	4 (2.1)	7 (3.6)	-	194 (38.4)	
	75~80세 미만	88 (59.5)	39 (26.4)	3 (2.0)	9 (6.1)	2 (1.4)	6 (4.1)	1 (0.7)	148 (29.3)	
	80세 이상	40 (60.6)	18 (27.3)	3 (4.5)	4 (6.1)	-	-	1 (1.5)	66 (13.1)	
계		301 (59.6)	134 (26.5)	18 (3.6)	22 (4.4)	9 (1.8)	15 (3.0)	6 (1.2)	505 (100.0)	

** p<.01

성별로는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노인일자리사업에 건강 유지의 수단을 위해 많이 참여하였고, 여자 노인은 남자 노인보다 생계비 마련을 위해 많이 참여하였으며,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8.46$, $p<.01$). 연령별로는 80세 이상 노인이 다른 노인보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생계비와 용돈 마련 위해 많이 참여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농촌노인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생계비 마련을 위해 가장 많이 참여하였으며,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생계

비 마련을 위해 많이 참여하였다.

4.2.5.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교육

농촌노인들의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총 시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이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3~5시간 미만 받은 노인이 2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시간 미만 21.4%, 10시간 이상 11.5%, 5~10시간 미만 11.3% 순으로 나타났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노인은 27.9%를 차지하였다.

<표 7>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교육시간

구 분		없음	3시간 미만	3~5시간 미만	5~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계	χ^2 (df)
성별	남	55 (30.9)	38 (21.3)	43 (24.2)	23 (12.9)	19 (10.7)	178 (35.2)	3.08 (4)
	여	86 (26.3)	70 (21.4)	98 (30.0)	34 (10.4)	39 (11.9)	327 (64.8)	
연령	70세 미만	29 (29.9)	18 (18.6)	29 (29.9)	10 (10.3)	11 (11.3)	97 (19.2)	15.57 (12)
	70~75세 미만	45 (23.2)	40 (20.6)	53 (27.3)	26 (13.4)	30 (15.5)	194 (38.4)	
	75~80세 미만	42 (28.4)	33 (22.3)	42 (28.4)	19 (12.8)	12 (8.1)	148 (29.3)	
	80세 이상	25 (37.9)	17 (25.8)	17 (25.8)	2 (3.0)	5 (7.6)	66 (13.1)	
계		141 (27.9)	108 (21.4)	141 (27.9)	57 (11.3)	58 (11.5)	505 (100.0)	

성별로는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여자 노인은 남자 노인보다 3~5시간 미만 많이 받았

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연령별로는 70세 미만인 노인이 다른 노인보다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3~5시간 미만 많이 받았고, 80세 이상 노인은 다른 노인보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교육을 3~5시간 미만 받은 노인이 가장 많았으며, 성별과 연령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2.6.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교육내용

농촌노인들이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교육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교육내용

(복수응답)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노인일자리사업 소개, 노인복지정책 소개	207	24.5
사업단 세부운영지침 안내	52	6.2
근로자로서의 역할	98	11.6
사회참여의 의미	73	8.6
동료관계 및 팀워크 향상	34	4.0
수요처, 수혜자와의 관계향상	23	2.7
안전교육	187	22.2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	60	7.1
직무수행을 위한 구체적 지식·기술교육	108	12.8
기타	2	0.2
계	844	100.0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사

업 소개, 노인복지정책 소개 교육을 받은 노인이 24.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안전교육 22.2%, 직무수행을 위한 구체적 지식·기술교육 12.8%, 근로자로서의 역할 11.6%, 사회참여의 의미 8.6%,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 7.1%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노인들은 노인 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소개, 노인복지정책 소개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4.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만족도

4.3.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만족도 수준

농촌노인들이 현재 참여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만족도 수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균이 '소속기관(수행기관) 실무자와의 관계'가 3.9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속기관(수행기관) 실무자의 전문성' 3.89, '동료와의 관계와 소속기관(수행기관)의 요구사항 반영 정도' 3.86, '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의 적절성' 3.85, '작업환경의 안전성' 3.8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여수준'이 평균이 2.99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사업유형별 급여의 공평성' 3.23, '일의 내용 흥미도' 3.70, '일의 난이도'와 '근로시간' 3.71, '작업장 이동 편의성' 3.74 순으로 낮았다.

이상과 같이 농촌노인들은 노인일자사업 중에 소속기관 실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만족도 수준

구 분	MEAN	SD
급여수준	2.99	0.98
사업유형별 급여의 공평성	3.23	0.89
일의 난이도	3.71	0.77
근로시간	3.71	0.78
일의 내용 흥미도	3.70	0.77
작업환경의 안전성	3.83	0.75
작업환경의 편의성	3.78	0.76
작업장 이동 편의성(접근성)	3.74	0.79
동료와의 관계	3.86	0.71
교육내용의 흥미도	3.64	0.75
교육의 직무 활용도	3.65	0.74
참여 신청부터 참여하기까지 절차의 간편성	3.78	0.74
소속기관(수행기관) 실무자의 전문성	3.89	0.67
소속기관(수행기관) 실무자와의 관계	3.98	0.70
소속기관(수행기관)의 요구사항 반영 정도	3.86	0.73
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의 적절성	3.85	0.67

4.3.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만족도

농촌노인들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70으로, 농촌노인들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 노인이 남자 노인보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연령별로는 70~75세 미만 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70세 미만 노인은 다른 노인보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나 연령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과 같이 농촌노인들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성별과 연령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만족도

구 분		N	Mean	SD	t(F)	p
성 별	남	178	3.72	0.46	0.63	0.529
	여	327	3.69	0.52		
연 령	70세 미만	97	3.60	0.55	2.45	0.062
	70~75세 미만	194	3.77	0.49		
	75~80세 미만	148	3.68	0.45		
	80세 이상	66	3.70	0.53		
전 체		505	3.70	0.50		

4.4. 노인일자리사업 요구도

4.4.1.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시 우선적 개선점

농촌노인들이 노인일자리사업 교육에 있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이 노인일자리사업 교육에 있어 우선적으로 노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노인이 2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교육비 증액 17.0%, 교육의 흥미도 향상 15.0%,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전달 14.1%, 직무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강화 11.7%,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 7.7%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노인일자리사업 교육에 있어 우선적으로 노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여자 노인은 남자 노인보다 교육비 증액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70세 미만 노인이 다른 노인보다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에 있어 우선적으로 교육의 흥미도 향상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고, 75~80세 미만 노인은 다른 노인보다 노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와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전달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11〉 노인일자리사업 교육 시 우선적 개선점

구 분		교육의 흥미도 향상	노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	교육횟수 또는 교육시간 조정	노인복지정책 및 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전달	계속참여자를 위한 심화교육 강화	교육비 증액	직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육 강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양교육	계	χ^2 (df)
성 별	남	26 (14.6)	40 (22.5)	5 (2.8)	23 (12.9)	24 (13.5)	28 (15.7)	22 (12.4)	10 (5.6)	178 (35.2)	7.42 (7)
	여	50 (15.3)	68 (20.8)	13 (4.0)	48 (14.7)	24 (7.3)	58 (17.7)	37 (11.3)	29 (8.9)	327 (64.8)	
연 령	70세 미만	20 (20.6)	17 (17.5)	5 (5.2)	11 (11.3)	10 (10.3)	15 (15.5)	13 (13.4)	6 (6.2)	97 (19.2)	15.85 (21)
	70~75세 미만	32 (16.5)	42 (21.6)	7 (3.6)	27 (13.9)	17 (8.8)	35 (18.0)	19 (9.8)	15 (7.7)	194 (38.4)	
	75~80세 미만	15 (10.1)	35 (23.6)	4 (2.7)	27 (18.2)	11 (7.4)	26 (17.6)	19 (12.8)	11 (7.4)	148 (29.3)	
	80세 이상	9 (13.6)	14 (21.2)	2 (3.0)	6 (9.1)	10 (15.2)	10 (15.2)	8 (12.1)	7 (10.6)	66 (13.1)	
계		76 (15.0)	108 (21.4)	18 (3.6)	71 (14.1)	48 (9.5)	86 (17.0)	59 (11.7)	39 (7.7)	505 (100.0)	

이상과 같이 농촌노인들은 노인일자리사업 교육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노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가 개선되어야 한다

고 인식하였으며, 성별과 연령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4.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시 느끼는 어려움

농촌노인들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12>와 같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교통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노인이 15.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높은 노동 강도 또는 일의 어려움 4.6%, 수혜자와의 관계 3.6%, 동료와의 관계 2.6%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시 느끼는 어려움

구분		교통문제 (이동문제)	동료와의 관계	수혜자(수 요처) 와의 관계	소속 기관의 관계	기술력, 전문성 (수행 능력) 부족	높은 노동강 도 또는 일의 어려움	일의 내용이 흥미 없음	없음	기타	계	χ^2 (df)
성별	남	27 (15.2)	2 (1.1)	9 (5.1)	2 (1.1)	6 (3.4)	10 (5.6)	3 (1.7)	112 (62.9)	7 (3.9)	178 (35.2)	7.00 (8)
	여	52 (15.9)	11 (3.4)	9 (2.8)	4 (1.2)	6 (1.8)	13 (4.0)	5 (1.5)	219 (67.0)	8 (2.4)	327 (64.8)	
연령	70세 미만	18 (18.6)	5 (5.2)	3 (3.1)	1 (1.0)	1 (1.0)	4 (4.1)	2 (2.1)	58 (59.8)	5 (5.2)	97 (19.2)	31.82 (24)
	70~75 세 미만	35 (18.0)	5 (2.6)	10 (5.2)	3 (1.5)	8 (4.1)	8 (4.1)	1 (0.5)	117 (60.3)	7 (3.6)	194 (38.4)	
	75~80 세 미만	17 (11.5)	3 (2.0)	4 (2.7)	-	3 (2.0)	9 (6.1)	2 (1.4)	108 (73.0)	2 (1.4)	148 (29.3)	
	80세 이상	9 (13.6)	-	1 (1.5)	2 (3.0)	-	2 (3.0)	3 (4.5)	48 (72.7)	1 (1.5)	66 (13.1)	
계		79 (15.6)	13 (2.6)	18 (3.6)	6 (1.2)	12 (2.4)	23 (4.6)	8 (1.6)	331 (65.5)	15 (3.0)	505 (100.0)	

성별로는 남자 노인이 여자 노인보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과정

에서 수혜자의 관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느꼈고, 여자 노인은 남자 노인보다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없었으나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75세 미만 노인이 다른 노인보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교통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 75~80세 미만 노인은 다른 노인보다 어려움을 느끼는 점이 없었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농촌노인들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교통문제로 인해 가장 많이 어려움을 느꼈으며, 성별과 연령별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들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실태와 만족도 및 요구도를 살펴봄으로써 농촌노인들의 노인일자리참여 활성화 방안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노인들은 노인일자리사업 중에 공익형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환경개선사업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의 환경개선과 같은 단순 일자리는 노인들의 전문성과 재능을 살리지 못하므로 농촌의 지역차이를 고려한 일자리 유형의 발굴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농촌노인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을 이용하고 있던 기관을 통해 가장 많이 알게 되었으며, 생계비 마련을 위해 가장 많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일자리 참여 욕구를 지닌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노인회와 경로당에 홍보활동을 보다 강화하고, 상담센터를 운영·설치하여 농촌노인들이 보다 쉽게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촌노인들의 한 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보수가 보장되는 노인일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둘째, 농촌노인들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중에는 소속기관 실무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물론 정부재정의 한계이지만 월 20만원은 지나치게 낮은 보수이어서 노인들의 소득보장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농촌노인들의 지속적인 수익창출로 더 많은 안정적 노인일 자리를 만들어 참여자의 자립방안을 모색해야 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을 통한 노인의 기본생존권 보장과 노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농촌노인들은 노인일자리사업 교육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노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강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교통문제로 인해 가장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 따라서 농촌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보다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노인들의 참된 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농촌노인들의 노인일자리참여 실태와 만족도, 그리고 요구도를 살펴봄으로써 농촌노인들의 노인일자리참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도시노인과 비교 검증은 통해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참여만족도 및 개인적, 사회적 요구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에 한정하였으므로 대도시지역 노인이나 한정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

서 설문조사 이외에 면담과 관찰법과 같은 사례연구를 통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 문헌 ■

- 강혁신. (2006). 고령자주거안정법안 제정배정과 목적, 고령자주거안정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 고수현, 윤선오. (2006). 새로운 노인복지론. 과주: 양서원.
- 김익균, 김인수, 이형진, 정용민, 최윤신. (2008). 노인복지론. 과주: 교문사.
- 남기철. (2009). 노인일자리사업 1기의 쟁점과 2기의 과제. *노인인력개발포럼*. 2. 5-30.
- 남기철. (2013).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쟁점. *서울경제*. 통권 94호. 3-11.
- 박광준. (2004).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서울: 현학사.
- 변계관. (2006). 한국에서의 고령자 고용정책의 현황과 정책방안. 서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보건복지가족부. (2009a). 2009년도 노인일자리사업안내.
- 보건복지가족부. (2009b). 2008년도 전국노인실태조사 및 복지 욕구조사.
- 이경순. (2012). 농촌 노인의 무망감 영향요인 연구.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문국. (2009).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구의 탈빈곤 결정요인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호선. (2005). 노인상담. 서울: 학지사.
- 장유미. (201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가 사회적 자본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통계청. (2006).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 통계청. (2010). 2009농업조사보고서.
- 통계청. (2011). 고령자통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3). 2012 노인일자리 통계동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Naegele G., & Kramer, K. (2001). Recent developments in the employment and retirement of older workers in Germany. *Journal Aging Social Policy*. 13(1). 69-92.
- Wolcott, I. (1999). Older workers, families and public policies. *Family Matters*. 53. 77-81.

A Study on the Participation of Rural Elderly People in Senior Employment Programs, Satisfaction Level and Needs

Kyoung Poon Ha^a · Min Kyoung Joo^b

^a Undergraduate of Liberal Studies Teaching, Hoseo University, Baebangeup Asan-city, ChungNam, 336-795, Republic of Korea.

^b Undergraduate of Liberal Studies Teaching, Hoseo University, Baebangeup Asan-city, ChungNam, 336-795, Republic of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articipation of rural elderly people in senior employment programs, their satisfaction level and needs in an effort to provide some information on the improvement of rural elderly people's quality of life.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largest group of the rural elderly people investigated took part in senior employment programs for the public good. The biggest group engaged in activities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the greatest group participated in these programs to earn their livelihood. Second, they were most satisfied with their relationship with the working-level employees of the institutions that were in charge of these programs, and they were least contented with their own pay. Third, the rural elderly people perceived that in terms of senior education for employment, customized education should primarily be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ces and diversity of senior citizens, and they faced the most difficulty due to

1178 하경분·주민경 / 농촌노인의 일자리사업 참여실태와 만족도 및 요구도에 관한 연구

traffic while they participated in these programs.

Given the findings of the study, it's required to take measures to bolster the self-support of rural elderly people.

key words : Rural Elderly People, Senior Employment Program, Satisfaction of Employment Program, Need of Employment Program



Kyoung Poon Ha is a part-time instructor of Undergraduate of Liberal Studies, Hoseo University,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on education and welfare for the aged. Address: Undergraduate of Liberal Studies, Hoseo University, Baebangeup, Asan-city, ChungNam, 336-795, Republic of Korea. e-mail) kyoungpoon@naver.com, phone) 82-041-540-5114



Min Kyoung Joo is a adjunct professor of Undergraduate of Liberal Studies, Hoseo University, South Korea. Her research interests on education and welfare for the aged. Address: Undergraduate of Liberal Studies, Hoseo University, Baebangeup, Asan-city, ChungNam, 336-795, Republic of Korea. e-mail) joomin386@hanmail.net, phone) 82-041-540-5114